

체력 예전같지 않다고?... 박지성 '산소탱크' 다시 입증

지칠 줄 모르는 체력에 새 무기 '관록' 더해 위기설 일축 에인트호번 라이벌 아약스전서 1골 1도움 '특급 활약'

네덜란드 프로축구 PSV 에인트호번으로 복귀한 박지성(32)이 '산소탱크'의 위력을 유감없이 뽐내며 위기설을 다시 한번 일축했다. 박지성은 23일(한국시간) 끝난 '라이벌' 아약스와의 에레디비지에 7라운드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는 맹활약으로 에인트호번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에인트호번으로서 3경기만의 정규리그 승리가 4년만에 리그 '라이벌' 아약스를 꺾은 한판이었다.

에인트호번이 아약스에 4골차 대승을 거둔 것은 8년만에 있는 일이다. 2005년 3월 20일 정규리그 아약스 원정 경기에서 현재 에인트호번 감독인 필립 코쿠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4골을 몰아넣었다. 당시 박지성은 '코리안 듀오'를 이룬 이영표와 함께 선발 출장해 풀타임을 뛰며 팀의 대승을 이끈 바 있다. 2004-2005시즌을 마지막으로 에인트호번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해 월드스타로 떠오른 박지성은 지난 시즌 쾰른과

크 레인저스에서 '암흑기'를 보낸 뒤 유럽 친정팀으로 복귀했다. 박지성은 복귀전인 AC밀란과의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경험이 일천한 젊은 선수들을 이끌고 팀의 1-1 무승부를 진두지휘했다. 지난달 25일 에레디비지에 복귀전에서는 헤라클레스를 상대로 천금같은 동점골을 넣어 최근 5시즌간 우승을 경험하지 못한 에인트호번의 구세주로 떠올랐다. 그러나 에인트호번은 이후 AC밀란 원정 경기에서 0-3으로 완패하고 에레디비지에에서는 2경기 연속으로 무승부에 그쳤다. 루도고레츠(불가리아)와의 유로파리그 홈경기에서는 0-2로 무릎을 꿇었다. 박지성은 한 점 뒤지던 후반 16분 교체투

입됐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지성을 향한 기대도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갔고 '체력이 예전같지 않아 코쿠 감독이 풀타임 활용을 주지한다'는 등 위기설마저 나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지성은 이날 풀타임 활약으로 아약스라는 대어를 누는 데 큰 힘을 보태며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박지성은 2-0으로 앞선 후반 19분 상대팀의 허를 찌르는 땅볼 크로스로 추가골을 도왔다. 역습 상황에서 팀 마타우쉬가 문전으로 쇄도하고 있었지만 수비진이 그를 막는데 집중한 틈을 타 뒤따르던 오스카 힐리마르크에게 공을 연결했다. 4분 뒤에는 아약스의 추격 의지를 꺾는 썬

기골마저 터뜨렸다. 골키퍼와의 일대일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노련함이 돋보인 장면이었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에 '관록'이라는 새 무기가 장착한 박지성이 올시즌 에인트호번에 2007-2008시즌 이후 6년 만의 우승컵을 선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에인트호번은 28일 AZ알크마르와 시즌 8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팬티샷' 스티븐슨 1144만달러 '잭팟'

PGA 투어 챔피언십 '와이어투 와이어' 우승 우승상금 144만달러에 보너스 1000만달러

2013 시즌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우승컵과 보너스 상금 1000만 달러(약 108억원)는 헨리크 스티븐슨(스웨덴·37)에게 돌아갔다. 스티븐슨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장(파70·7154야드)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타를 줄였다. 함께 13언더파 267타를 적어낸 스티븐슨은 조던 스피스(미국), 스티브 스트리커(미국·이상 10언더파 270타)의 맹추격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플레이오프 2차전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에 이어 투어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한 스티븐슨은 페덱스컵 랭킹에서 타이거 우즈(미국)를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스티븐슨은 대회 우승 상금 144만 달러(약 15억8000만원) 이외에도 플레이오프 최종승자에게 주는 보너스 상금 1000만 달러를 받는 대박을 터뜨렸다. 투어 챔피언십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놓치지 않는 '와이어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한 스티븐슨은 2007년부터

시작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 우승한 첫 번째 유럽선수로 기록됐다. 2009년 플레이스 챔피언십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던 스티븐슨은 올 시즌에만 2승을 추가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페덱스컵 랭킹 1위로 투어 챔피언십에 나선 우즈는 함께 이븐파 280타, 공동 22위로 대회를 마쳐 페덱스컵 랭킹 2위가 됐다. 스티븐슨은 지난 2009년 3월 월드골프 챔피언십 CA 챔피언십 당시 공이 진흙밭으로 날아가자 진흙이 될 것을 염려해 팬티만 남긴 채 옷을 훌쩍 벗고 샷을 날리는 '팬티샷'을 선보였다. 이 장면은 그가 위기를 맞았을 때 알은수로 이를 빠져나오려 하기보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스타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두 차례나 겪어야 했던 슬럼프를 빠져나오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이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PGA 투어 페덱스컵과 투어 챔피언십을 석권한 스티븐슨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무너진 선동열호, 혹시 NC에도 밀리나

프로야구 전망대

'이기는 리빌딩'이 호랑이 군단의 운명을 좌우한다. KIA는 지난 16일 한화와의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22일 두산과의 잠실 경기까지 길고 긴 7연전을 치렀다. 씁쓸한 일정에 추석 연휴까지 긴 고행길이었다고는 하지만 결과는 1승6패로 초라했다. 경기 내용도 성적만큼 형편없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선발진과 해결사가 사라진 타선, 허술한 수비, 무기력한 벤치까지 총체적 난국이었다. '위기 관리'에 실패한 KIA는 후반기 0.250(12승36패)의 승률을 보이며 계속해서 뒷걸음질 쳤다. 결국 2년 연속 4강 싸움에서 배제

리빌딩 속 무기력한 플레이 연속... 8위와 반계임차 오늘부터 고행의 7연전... 팬심 잡기 마지막 자존심

되면서 9월의 화두는 '리빌딩'이 됐다. 신진급 선수들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마운드 테스트가 진행되는 등 리빌딩 체제가 조기가동된 것이다. 내년 시즌을 목표로 한 체제로의 전환이지만 경기 과정이 너무 무기력하다. 지는데 익숙해지면서 신생팀 NC가 0.5계임차 뒤에서 7위를 노리고 있다. 리빌딩 카드가 패배의 면죄부는 아니다. 단순히 신진급 선수를 중용하는 것만으로 리빌딩이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리빌딩은 선수들에게는 조금 더 여유있게

KIA는 24일부터 26일까지 안방에서 롯데와 대결을 가진 뒤, 27-28일 문학으로 올라가 SK와 2연전을 치른다. 4강 후보에서 위기의 팀이 된 이들의 만남이다. 이후에는 패배가 더 치명적인 두 팀 한화·NC와의 경기다. 29일 프로야구 첫 9위 팀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이어 30일 마산으로 건너가 막내 NC와 승부를 갖게 된다. 이번 7연전은 7경기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중요한 승부다. 승패도 승패지만 이기고 지는 과정도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평가 받게 될 전망이다.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절체절명의 승부. 운명의 7연전이 침몰 위기의 '선동열호'를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황제' 우즈 올해의 선수상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 프로골프협회(PGA)가 주는 2013 올해의 선수상을 받는다. 23일(한국시간) 시즌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이 끝난 뒤 우즈는 90점을 받아 개인 통산 11번째 수상상을 확정했다. PGA가 주는 올해의 선수상은 선수들간의 투표로 결정되는 '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과 달리 각 대회의 성적을 점수로 환산해 결정된다. 2013시즌이 마감되면서 우즈는 상금왕과 최저 평균 타수상(바든 트로피)



도 차지했다. 우즈는 올 시즌 PGA 투어에서 5승을 거두며 1인자의 자리를 지켰지만 메이저대회와 플레이오프에서 정상에 오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우즈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5승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시즌이었다"고 말했다. 우즈는 투어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 18번홀에서 홀아웃한 뒤 팔 뺌을 안고 행복한 표정으로 대회를 떠났다. /연합뉴스

조대부고 동문 440명 라운딩... 기네스북 등재 추진

광주지역 한 고교동문회가 동원 골프장에서 동문 110개 팀(440명) 이상이 동시에 라운딩을 벌이는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해 화제다. 조산대 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오는 29일 군산CC에서 동문 110개 팀 440명(여성)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조대부고총동창회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11년 첫 동문 골프대회에는 40개팀 160명이 참가했으나 지난해 9월 열린 대회에는 101개팀 404명이 동시 라운딩을 벌여 고교동문 골프대회 사상 최다 참가 기록을 수립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총동창회는 올해에도 110개 팀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3일 한국기록원에 '고교 동문 골프대회 최다 참가' 기네스북 등재 신청을 했다. 현재 동문을 대상으로 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최광호 총동창회 골프회장은 "동문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모교 발전을 위한 이벤트로 올해로 3회째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동일 골프장에서 한 고교 동문이 100개 팀 이상 라운딩을 벌이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여서 기네스북 등재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010-5283-4001)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최향남 1000이닝 투구 -5.1
 - 송지만 3200루타 -14
 - 이호준 1600경기 출장 -3
- 베테랑들의 기록행진이 프로야구의 대미를 장식한다. 구단별로 5~10경기를 남겨두면서 프로야구 대장정의 종착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선두권 팀들의 치열한 접전 속에 남은 기록들이 야구의 재미를 더한다.

프로야구 베테랑들의 계속되는 기록행진

기록의 중심에 서있는 베테랑들의 활약에 특히 눈길이 쏠린다. 프로야구 최고령 선수인 KIA 투수 최향남(42)은 1000이닝을 앞에 두고 있다. 먼 길을 돌아 돌아 친정팀으로 돌아오노라 늦어진 1000이닝. 앞으로 5.1이닝을 책임지면 1000이닝 투구 선수로 이름을 올린다. 타자에서는 백승 송지만(40)의 질주가 남아있다. 14루타를 더하면 역대 2번째로 3200루타를 채우게 된다. 통산 16번째 700사구(四球)도 -9다. 녹슬지 않은 수비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 SK 박진만은 5경기에 더 나서면서 1900경기에 출장한 10번째 선수가 된다. NC의 핵 이호준(37)은 3경기에 더 출전하면 1600경기 출장(24번째) 기록을 쓰게 된다. '국민타자' 삼성 이승엽(37)의 유일무이한 10년 연속 200루타(-25)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25루타를 남겨두고 있는 이승엽은 지난 18일 허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롯데에 새동지를 든 장성호(36)는 7000타수와 1100득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 28타수와 5득점이 더해지면 2번째 7000타수, 4번째 1100득점의 주인공이 된다. 베테랑 중의 베테랑 한화 김응우 감독은 3경기를 더 지휘하면 2800경기 출장 기록을 달성한다. 프로야구 첫 기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